



도하아시안게임 개막 D-98

아시아 빛날 스타들

박태환 '수영 셋별'로 뜬다

한국 양궁·女力士 장미란 타의추종 불허 '황색탄환' 류시앙 자신의 세계新에 도전

류시앙, 박태환, 기타지마, 레자자데, 장미란, 두리, 귀징징, 스티치판...

오는 12월 '열사의 땅'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제15회 아시안게임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펼칠 '황색 월드컵'이다.

45개국에서 1만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할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세계기록 보유자 등 각국이 자랑하는 '국보급' 스타들이 적잖게 출전할 전망이다.

우선 눈에 띄는 아시아의 별은 '황색탄환' 류시앙(23·중국).

지난 달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슈퍼그랑프리대회 남자 110m 허들에서 세계기록(12초88)을 작성한 류시앙은 '황인종은 올림픽 육상 단거리에서 결코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없다'는 서구의 편견을 보란듯이 깨뜨린 아

시아의 기린이다.

육상에서는 또 남자 3,000m 장애물 세계기록 보유자 사이프 사에드 샤힌(카타르), 남자 해머던지기 '황색 헤라클레스' 무로후시 고지(일본)가 류시앙과 함께 '빅3'로 꼽힌다.

일본 수영의 간판 기타지마 고스케(23)는 아시아가 자랑하는 '인간 어뢰'다.

아테네올림픽에서 라이벌 브랜든 헨슨(미국)을 제치고 평영 100m와 200m에서 연달아 금메달을 따내 열도를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린 기타지마는 울들어 겪고 있는 슬럼프에서 헤어나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요즘 추세로 볼 때는 '한국 수영의 대물보' 박태환(17·경고고)이 아시안 게임에서 최고의 '경영 스타'로 뜰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와함께 '인간 크레인' 레자자데 후세

인(28·이란)은 남자 역도 최종량급(105kg 이상급)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이자 세계기록(합계 472kg) 보유자다.

역도에는 세계기록 보유자 장미란(24·원주시청)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의 양궁과 마찬가지로 자국내 선발전이 국제대회보다 더 어렵다는 중국 사격의 예이스는 '1번 종목'인 여자 10m 공기소총의 두리(24)다.

감심장으로 결선에 유난히 강해 경쟁자들을 주눅들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꼭 빠진 몸매의 '다이빙 여제' 귀징징(25·중국)은 도하에서 다시 현란한 '낙하쇼'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때 남자프로테니스투어(ATP) 세계랭킹 9위까지 올랐던 파라노 스티치판(27·태국·현 세계랭킹 45위)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이어 테니스 남자 단식 2연패에 도전한다.

경쟁자는 한국 테니스의 간판 이형택(29, 삼성증권). 이형택은 4년 전 부산에서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단단히 버리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파도 병풍'...서핑의 참맛

24일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 여자 투어 빌라보 프로 대회 1라운드에서 세레나 부르르카가 멋진 서핑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화순중 KIA타이거즈기야구 우승

화순중학교가 제1회 KIA 타이거즈기 호남지역 중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진>

화순중은 24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전주 전라중과의 결승전에서 7-3으로 완승하고 우승기를 품어 안았다.

A조 1위로 준결승에 진출한 화순중은 전날 B조 2위 무등중을 9-8로 꺾고 결승에 선착했고 A조 2위 전라중은 B조 1위 군산남중을 15-2로 꺾고 준결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화순중 문우람은 이날 2타수 2안타로 최우수 선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화순중 선발 투수 이승현은 우수 투수상을 수상했다. /박진표기자 lucky@



보성서 청소년축구 강자 가린다

MBC 꿈나무축구리그 27일 결승

MBC꿈나무축구리그 전라지구 권역별 결선대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보성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지역 예선을 통해 4강에 진출한 보성유소년 축구팀과 전북현대 유소년팀의 경기를 시작으로 광주 흥영우팀과 광주 북구꿈나무팀의 준결승전이 연속 경기로 펼쳐진다.

두 경기에서 승자는 이날 결승전을 통해 대회 우승컵을 다투게 된다.

보성 유소년 축구팀 배수현 감독은 "보성 유소년팀의 실력은 타 지역 우수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며 우승을 자신하고 있다.

한편 보성군 축구협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중·고등학교 축구팀 창단에 추진할 예정이다.

전재필 보성군 축구협회장(42)은 "유소년축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한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군내 중·고교 축구팀 창단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보성=안구일기자 gjahn@kwangju.co.kr

"세계 최강 해켓과 겨뤄보고 싶다"

■ 범태평양 수영 2관왕 박태환 귀국

"이제 세계 최강 그랜드 해켓과 붙어보고 싶어요"

한국 수영의 정글코스(50m) 세계대회 출전 사상 첫 우승의 쾌거를 달성한 '수영 희망' 박태환(17·경고고·사진)이 주종목 자유형 1,500m의 최강자 그랜드 해켓(호주)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1일(한국시간) 캐나다에서 막을 내린 2006 범태평양 수영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한 박태환은 24일 낮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자리에서 "내년 3월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해켓과 맞붙고 싶다"며 자신있게 말했다.

해켓은 2001년에 자유형 1,500m를 14분 34초56에 끊어 세계신기록을 수립한 장거리 수영의 절대 강자다. 박태환의 기록은 지난해 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작성한 15분00초 32로 해켓에 비해 25초 가량 뒤져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정상급 선수의 대열에 이름을 올린 박태환이지만 해켓과 기록을 비교하면 아직도 한참 모자라다.

하지만 박태환은 아직 고교 2학년의 어린 나이임에도 강한 승부욕과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수확은 자신감"이라며 "아직 모자란 것이 많지만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태환은 또 오는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대한 목표도 밝혔다. 자유형 200m와 400m, 1,500m 세 종목에 도전할 예정인 박태환은 "자신감 하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아시아 3관왕에 도전하겠다"고 당당히 포부를 밝혔다.

'연습벌레'로 알려진 박태환은 마지막으로 "여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한 면을 많이 보완해야 한다. 체력과 기술이 부



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잘 먹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열심히 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함평다이너스티CC 사원 월출산서 극기훈련

○--함평다이너스티CC는 지난 14일 혹서기 휴장일을 맞아 영암 월출산에서 전종사원 극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극기훈련은 오전 월출산 산행에 마친 후 오후에는 월출산 온천관광호텔에서 서비스 교육 및 각 부서별 교육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오영내 함평다이너스티CC대표는 "극기훈련을 통해 좀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며 "고객감동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골드레이크CC는 오는 9월 1~20일 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제코스(파 72·6,457m) 시범라운딩을 실시한다.

골드레이크CC는 전남 나주호의 수려한 경치를 자랑하는 총 65만평 부지에 2003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해 2005년 9월 1차 퍼블릭코스를 오픈했고, 1년만인 2006년 9월에 2차 회원제 18홀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오픈하는 회원제 코스는 석양(골프), 호수(레이크) 코스 18홀로 이중

13개 코스에서 나주호의 생동하는 절경을 바라보며 라운드를 즐길 수 있다.

그린피는 회원은 회원요금, 회원과 동반한 비회원원은 퍼블릭 요금과 동일한 주중 8만원, 주말 12만 5천원이며 카트요금은 무려다.

한편 골드레이크CC는 회원제 코스 오픈에 맞춰 9월 26~10월 1일까지 SBS KPGA '중흥S-클래스 골드레이크 오픈 대회'를 개최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1억 절고, 점쟁이와 내기 한 사연!

사연: "저는 1억을 절고, 점쟁이와 내기 한 사연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내게 1억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믿고 내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 060-700-3658

사연: "저는 1억을 절고, 점쟁이와 내기 한 사연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내게 1억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믿고 내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 060-700-3658

사연: "저는 1억을 절고, 점쟁이와 내기 한 사연이 있습니다. 점쟁이는 내게 1억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믿고 내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 060-700-3658

진미령 아무진 꽃계장!

먹여 본 사람은 만드사 또 갖는다는 그 맛!
40만세프 판매기념, 최초구성에 7마리 추가

■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1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진미령 아무진 꽃계장

구입문의 080-440-8080